

제 24회 마지막 수확(14:14-15:4)

14-20절.

14-20절은 12:1절로부터 15:4절에 이르는 일곱 섹션 중의 여섯 번째 섹션이다. 마치 여섯 번째 인과 같이, 여섯 번째 비전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 섹션은 또한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일곱 번째 섹션(15:2-4; cf. 8:1, 3-5)이 뒤따라 나온다.¹⁾

14-20절의 말씀에서는 14:6-13절에서처럼 세 다른 천사에 의해 사건의 골격이 형성된다. 이 세 다른 천사는 14:6-13절에서 사건을 주도했던 세 다른 천사의 재등장이랄 수 있다. 이 부분이 14:6-13절과 다른 점은 14:14절에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그의 손에는 날선 낫을 가지고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 7:13절을 그 배경으로 종말론적인 왕적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로서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씀은 또한 마태복음 24:30절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인자의 오심을 ‘구원과 심판’이라는 양면을 생각하게 한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는 그가 인자로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심판과 구속이라는 두 가지 일을 하실 것을 예언하셨다(마 24:27-51; 막 13:26; 눅 21:27ff.). 그 인자는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신다. 면류관은 그 인자를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규정해 준다. 또한 그의 백성들도 “금 면류관을 쓰고”(4:4, 10) 그 인자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인자의 면류관은 또한 원수들을 정복하는 그의 왕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19:2).²⁾

14-16절

그는 또한 날이 선 낫을 손에 들고 있다. 이 때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하기를,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두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다.” 이 때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날카로운 낫을 땅에 보내자 땅이 추수가 되었다. 여기에서 곡식의 추수는 요 4:35절과 마 9:37-38절과 평행을 이루며, 따라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종말론적 사건인 것이다. 여기에서 요한이 불신자들의 심판과 성도들을 모으는 추수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에 추수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14-16절은 그리스도 재림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신자들을 모아들이는 곡식 추수로 나타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은 모아들여 창고에 넣는 것이다.

17-19절

1)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770.

2) Ibid.

17절에서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자신이 날이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다. 이는 14:14절에서 인자가 그 날이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던 것과 비교될 수 있다. 18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온다. 이 다른 천사는 불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심판을 시행하는 천사라는 의미이다. 이 다른 천사가 날이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는 다른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라고 한다. 여기에서 포도 수확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땅에서 거둔 포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절

20절은 이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게 집행되는지를 강조한다. 먼저 포도주가 포도주 틀에 들어갔는데, 그 틀에서 포도주 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되어 나오되, 높이로는 말의 굴레까지 올라왔고 넓이로는 일천육백 스다디온까지 넓게 퍼졌다. 이는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의 양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 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 피가 떨어지는 범위를 요한은 일천육백 스다디온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이 숫자는 4X4X10X10으로 분해되는데 이것은 넷이라는 숫자 둘과 십이라는 숫자 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넷’이라는 숫자는 세상 전체를 의미하며(5:6의 네 생물; 7:1의 네 모퉁이), ‘십’이라는 숫자는 왕들과 관련이 있다(17:12-14). 그러므로 심판의 대상이 온 세상의 왕들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4:14-16절에서의 곡식 수확은 한 번의 과정이지만, 17-20절에서의 심판은 두 개의 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보여준다. 포도를 포도주 틀로 모으는 것과 포도주 틀에서 그 포도를 밟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두 행위는 16:12-14절에서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들을 파멸시키는 두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³⁾ 그러므로 17-20절까지의 포도 수확은 그리스도 재림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불신자들의 심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중적인 측면이 함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15:1-4절.

일곱 번째 비전은 15:1절의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을 소개하는 서론이 중간에 끼여 있게 된다.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는 15:5절에 가서야 비로소 시작되어 집에도 불구하고 1절에 미리 살짝 끼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이한 구조를 ‘연결 장치’(interlocking)이라고 한다. 2-4절에 나와 있는 일곱 번째 비전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이 비전이 12:1-14:20절의 결론이며, 동시에 일곱 대접들 재앙의

3) Richard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Scotland: T&T Clark, 1993) 293.

서론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⁴⁾ 이렇게 15:2-4절의 연결 장치의 기능은 14:6-13절에서 언급되었고 14:14-20절에서 묘사되었던 마지막 심판의 아이디어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2-4절의 노래는 14:6-11절과 14-20절에서 이미 묘사되었던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것이다.

열방들을 회심시키는데 있어서 순교자들의 증거의 결과를 기술하고 있는 계시록의 세 번째, 즉 마지막 본문은 15:2-4절이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출애굽 모티브가 사용되어진다. 15:2절은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교되는, 순교를 통해서 하늘로 들어가는 순교자의 본문이다.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 드렸듯이(출 15:1-8), 그들을 위해 이루신 승리를 찬양하며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이다. 순교자들의 노랫말은 모세의 노래에 대한 해석인데, 요한은 그 당시의 유대적 석의 방법들을 전형적이고 정교하게 사용함으로써 도출해 내고 있다(cf. 사12장).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한 심판과 구원 행위가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반면에, 요한은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즉 열방들이 회개하며 그들이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다(14:7).⁵⁾

이러한 모세의 노래에 대한 재해석의 중요성:

새로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심판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건으로 보지 않고 열방들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과 정당함의 입증(vindication)을 통해서 성취하신 승리를 찬양하는데, 자신들의 구원을 인하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순교를 통한 승리가 열방에 가져온 효과, 즉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을 송축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희생으로 모든 열방으로부터 한 민족을 구원해 내고 그들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5:9f.),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이 백성들이 순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함으로써 열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15:2-4절의 의미는 표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1-13절의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퀴즈]

14절에서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

4)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784.

5)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98-99.